

서울시에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능 개선 정책 방향' 제안

연구원은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대한토목학회와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와 공동 수행한 '서울시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능 개선 정책 방향'의 연구 결과를 최근 서울시에 제출하였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정부의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계획 발표와 잇따른 지하 동공 발생 등 노후 인프라 시설로 인한 시민 불안이 커져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착수되었다. 연구 결과에서는 하수관로·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등 도시 안전 핵심 4대 시설군(물관리, 교통, 교육, 다중이용시설)별 주요 프로젝트 11개를 제시했다. 한편, 지난 7월 29일에는 서울시 영상회의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종웅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김흥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등 서울시 고위 관계자와 서울 건설협회 회장단, 그리고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영환 연구위원이 용역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종합심사낙찰제 개선 전문가 회의 참여

연구원의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지난달 21일 기획재정부 국고국 주최로 진행된 '종합심사낙찰제 개선 전문가 TF회의'에 참석하여 건설업계의 의견이 수렴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최민수 실장을 비롯하여 이원식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이호근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이유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훈기 경희대 교수 등이 참석하여 시공평가 점수 반영 방안과 동점자 처리 개선 방안 등의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 과정 교육생 모집

연구원은 이달 15일(화)부터 17일(목)까지 3일 간 건설회관 9층 연수실에서 건설업체 민간투자사업 실무자와 유관 단체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교육 과정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 전략, 사업성 분석 및 제도 등 실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기업지원팀 (02-3441-0691, 0848)으로 문의하거나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cerik.re.kr>)를 참조하면 된다.

도서회원 모집

연구원은 도서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도서회원은 일반 개인이나 건설업체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회원(20만원/년)과 학생 및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회원(15만원/년), 그리고 월간 「CERIK저널」 정기 구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널회원(6만원/년) 등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기업지원팀 (02-3441-0848)으로 연락하면 된다.

